

보도시점 2025. 3. 17.(월) 15:30 배포 2025. 3. 17.(월) 1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입주기업 방문

- 국유지 활용 1호 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하여 시연회 및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 유희·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주거일체형 등 청년 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창업시설 지속 확대
- 청년 우선대부 및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7일(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 현장방문 개요 >

- ▶ 일시/장소: '25.3.17.(월) 14:00~15:00 / 역삼청년창업허브(서울 강남구 선릉로 93길 4)
- ▶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정책조정국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운영기관) 소셜벤처허브, 코이카 이노포트, 스파크플러스 (입주기업) 하나루프, 다이노즈, 이노큐브 등 10개 기업

역삼청년창업허브('19년)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하여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이다.

정부는 유희·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하여 부산('21년)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대전에도 준공을 마치고 개원을 준비중이다. 또한 영등포세무서('25~'30년), 수원세무서('24~'29년), 천안세관('24~'29년), 대구 수성세무서('25~'30년)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하여 456명의 청년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한 후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 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대부 및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25년 18개소), 청년전용 창업자금(‘25년 3천억원), 청년창업펀드(‘25년 667억원 조성목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책임자	과 장	마용재 (044-215-5250)
		담당자	사무관	민희경 (mhk0307@korea.kr)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장훈 (044-215-5150)
		담당자	사무관	이찬호 (realbrown2@korea.kr)

